

“통일 인재 교육은 한반도 미래 불사”

4. 새터민 대학생 지원하는 통일바라밀숲

새터민 대학생들의 생활은 여러모로 힘들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니 늘 시간에 쫓긴다. 이들에게 매달 소정의 생활비가 지급된다면 그들은 좀더 나은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을 우리 불교가 해보면 어떨까?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통일 일꾼'이 되니, 이것이 '통일불사'가 되는 것이다. 통일바라밀숲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장학금 지원을 넘어 새터민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는 통일바라밀숲을 만나보자. 정혜숙 기자



통일바라밀숲은 새터민 대학생 장학금 및 교양강좌 후원 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통일바라밀숲 대학생들.



낙산사 사찰순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악수를 마시고 있다.

“통일바라밀숲 활동 전에는 외부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 아르바이트에 학교 공부만 하기에 버거웠죠. 남한 친구들 수준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몇 배로 노력해야 하고 생활도 유지를 해야하니 늘 바빴어요. 통일바라밀숲 활동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과들 사귀고 또 멘토링 선생님들로부터 인생의 조언도 들으면서 삶이 많이 변했어요. 새로운 꿈이 생겼죠. 앞으로 능력 있는 사업가가 되어 통일이 되면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통일바라밀숲 회원 서정원 씨(27·한국외대)

통일바라밀숲(공동대표 남지심)은 새터민 대학생 장학금 및 사회적 후원을 위해 2013년 5월 결성됐다. 낮은 남한 땅에 정착해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하고 가족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후원자가 되고자 한 것이다.

남지심 작가·배경식 前서울대 교수·임성수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위원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새터민

청소년·대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통일 이후 남북을 잇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결성된 단체가 통일바라밀숲이다.

통일바라밀숲 남지심 공동대표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새터민 청년들의 모임이다. 회원들은 새터민 대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는 후원자·멘토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통일바라밀숲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 정기모임 △매월 장학금 지원 △각종 각종 사회 저명인사 멘토링 △1:1 업무 인연 맺기 △한국 문화재 답사 △한국 속의 한국을 찾는 국내 배낭여행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한국어 및 글쓰기 교육 △문화창작집단 바미 수강 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에게 물질 정신적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20여명의 대학생들이 매월 3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후원단체(후원자)로는 불광사, 천불사, 흥천사 낙산사, 금강선원, 애기꾼, 금강회, 아름다운동행, 김복희 前한양대 교수, 임성수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위원, 김태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

현재 20여명 후원, 명상 문화답사도 대학생 33명 장학금 결연 목표 내년 北 친구 연동 달기도 계획

사 국내사업본부장, 이연경 금강선원 신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 봉은사도 지원에 합류할 예정이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터민 대학생 신대성(29·동국대) 씨는 통일바라밀숲 활동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말한다. “남지심 대표님과 많은 멘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한다. “남지심 대표님과 많은 멘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한다. “남지심 대표님과 많은 멘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한다.”

이현주(25·동국대) 씨는 “작가님과 스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공부가 된다. 또 이 모임을 통해 힘들고 우울할 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 너무 좋다”고 전한다. 한 학생은 새터민들이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서 이

새터민 대학생들의 희망과 꿈 그리고 그리움을 담은 글

진달래꽃과 어머니

“준호야, 꽃 좀 봐라. 저기 진달래꽃이 참 곱게 폈다야.”

어머니는 다섯 살 된 저를 양지바른 산등성이에 앉혀 놓고 나뭇잎을 뜯으시다가 저를 향해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자꾸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며 어머니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깎아지른 듯 한 바위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피어 있는 분홍색진달래꽃. 어머니는 그 진달래를 손으로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금년에도 진달래가 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은 한반도 북쪽이니까 지금 진달래가 한창 피고 있을 지도 모르겠군요. 먹이를 쫓아 이산 저산을 넘는 짐승처럼 저도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

로 갔고, 거기서 다시 남한에 가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남한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대학생활,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정말 내가 대학생이 된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해 본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이 봄을 지내고 계십니까? 이 봄에도 산등성이를 헤매 다니시며 나뭇잎을 뜯고 계십니까? 그러시다가 바위절벽에 핀 진달래꽃을 보고 저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그리웁니다. 20년 전 어느 봄날, 어머니와 저는 진달래꽃을 보며 서로 굳은 약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삶을 아름답게 꽃피워야하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꼭 지켜보셔야 한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어머니는 제 존재

이유인 전부입니다. 성공해야 하는 것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반드시 살아계시다가 그런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제 말 듣고 계시지요? 이준호(동국대)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법체계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마찰을 줄여 사회통합의 기초를 다지는데 이바지하고 싶어서입니다. 김금혁(고려대)

통일 후 치안 책임지는 경찰 되고파

경찰, 어린시절 막연하게 키워오던 꿈이었습니다. 한국에 입국 후 더욱 경찰에 대한 꿈을 키워오게 되었고, 통일 후 가장 걱정이 되는 치안을 책임

질 수 있는 책임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경찰이라는 직업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금전적인 이유도 중요하지만 보다 저 자신이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되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주(동국대)

대한민국은 꿈을 찾아 주었다

저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이 모든 정신력과 힘을 오직 먹는 것에 전념해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부모님이 피땀 흘려 지은 양식을 국가에서는 군량미라는 명분하에 모두 수탈해가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두만강을 건넌고, 한국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에 메콩강을 건넌습니다. 길지 않지만, 짧지도 않은 이 길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과 교훈, 그리고 삶의 방향을 찾아주었습니다. 서정원(한국외대)

佛紀 2558年 甲午年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Buddha's birthday

(法) 대한불교 법성종

<p>종 정 장 허 덕암</p> <p>총 무 원 장 능 허 혜운</p> <p>교 육 원 장 설 허 만원</p> <p>문 화 원 장 락 허 혜운</p> <p>총무원부원장 도 원</p> <p>포교원부원장 보 안 현철</p>	<p>중앙총회의장 일 허 혜승</p> <p>규 정 원 장 조 허 혜운</p> <p>교육원부원장 법 정</p>
<p>재 무 부 장 옥 천 류옥순</p> <p>총 무 부 장 백 봉 성관</p> <p>종 무 부 장 보 현 유옥임</p>	<p>포 교 부 장 보 현 조보현</p> <p>교 육 부 장 일 초</p> <p>문 화 부 장 문 순재</p>



종 정 장 허 덕암



총무원장 능 허 혜운



대한불교 법성종 총무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1-14 TEL 02)747-2202, 02)762-2459